

Spring 2019 JSC Archive

나는 누구인가



Junior Scholar Club
Humanities & Social Science

2019년 봄학기를 마무리하며

JSC 인문사회챗터 회장 민태원

나날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에 2019년 봄 학기를 맞아 JSC 인문사회 챗터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읽으며 우리는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 대해 반추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마음의 과학>을 읽으며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의 렌즈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유 의지란 없다>를 통해선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운지 다시금 생각해보았고, <나의 타자>를 읽으면서 '나'라는 집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를 읽으면서 우리는 비-인간인 AI를 통해서 인간을 배워갈 수 있었고, <정신.자아.사회>는 나라는 존재가 타자와 어떻게 얽혀있는지 탐구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로 학기를 갈무리하며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책들을 읽고 오랜 시간 토론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점도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 우리는, 소크라테스로 되돌아가면, '나'에 대한 무지를 알 수 있었고, 동서고금의 수많은 학자들과 예술가들의 고민을 함께하며 그들 또한 인간에 대해 무지했고 왜 '나'라는 존재에 대해 천착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학기에 우리의 실패들을 부끄럼 없이 책으로 담으며 실패의 기록들이 책장을 넘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혹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동안 JSC에서 인간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의 자유로운 공부를 격려해 주시는 김정수 동문님, 교수님들, 선배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ontents>

2019년 봄학기를 마무리하며 - JSC 인문사회챗터 회장 민태원	3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 유발 하라리	7
마음의 과학 - 스티븐 핑커 외	23
자유의지는 없다 - 샘 해리스	36
나의 타자 - 슬라보예 지젝 외	57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필립 K. 딕	75
정신·자아·사회 - 조지 허버트 미드	89
스페이스 오디세이 - 스탠리 큐브릭	101

2019-1 JSC Archive

- 나는 누구인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슬람 혹은 다른 어떤 참신한 신조가 2050년 세계를 건설하려 한다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생명공학을 이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유의미한 새로운 서사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독서노트

28기 최희찬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는 사피엔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유발 하라리의 2018년 신작 서적이다. 이 책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 후에 일어날 정치적 반응, 위험에 대한 대처, 탈진실의 개념, 유발 하라리의 인류에 대한 제언으로 이루어진다.

개괄적인 내용은 이러하다. 현재 인류는 급속도로 빠른 기술성장을 진행중이다. 특히 빅데이터, AI와 같은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발전은 인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 이러한 발전 속에서 인류의 정치적, 민족주의적 갈등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일원화로 한동안 지식되었던, 프란시스 후쿠야마에 의하면 ‘역사의 종말’의 시기는 결말로 치닫한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실업, 테러, 종교, 탈진실등으로 야기되는 분쟁은 닥쳐올 미래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고, 실업은 현재 유지되는 정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표명하게 될 것이다.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본문에서와 같이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낸다.

미래에 대한 대부분의 전망은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실업이 늘어가면서 사람들을 많은 일자리를 잃어 갈 것이다. 기술 변혁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사람들은 앞으로 금방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알고리즘에 의한 선전기술이 늘어나며 본인의 정체성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책의 내용은 실로 광범위하다. 광범위한만큼 큰 그림을 그렸을 수 있지만, 유발 하라리의 예측과 해석은 본인만의 주장일 가능성도 크고, 다른 사람에 의해 그 논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내용을 좁혀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 써보고자 한다. 모든 정치적인 현상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유발 하라리의 ‘모든 사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문구를 ‘모든 정치적인 것은 사적이다.’라고 표현하고자한다.

유발 하라리는 미래에 존재할 가장 세가지 실존적 위기를 첫 째, 핵무기의 도전, 둘째, 생태학적 도전, 셋 째 기술적 도전이라 규정한다. 따라서 민족주의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지구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 의무감을 형성해야한다고 본다. 또, 종교를 기술적 진화와 경제이론의 진화로 그 위치를 잃어가지만 민족주의의 시너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내 생각에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전통의 보존이다. 전통이란 역사와 같아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거를 현재에 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그 목적은 미래를 위해서이며 현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애거부와 같은 기독교적 윤리나, 가부장적인 이슬람 윤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에 적합하지 않은, 과거 종교의 잔재이다. 이러한 과거적 전통을 현재에 맞게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야할 몫이 종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유발 하라리가 말한 대로 일신교가 과거적 전통의 유지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내세주의다. 테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테러의 목적은 대개 정치적이라는 데 의견이 합치된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까지 종교를 위한 테러를(정치적이라는 것의 의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사회에 실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시킨다면)발생 시키는 것은, 이러한 종교의 성격과 무관하다고 볼수만은 없을 것이다.

유발하라리는 테러에 대해 과잉반응을 피해야하며, 정부가 테러망을 겨냥한 비밀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내 생각에 환경문제와 같이 테러문제에 가장 중요한 점은 민족주의적인 이념을 버리고, 전지구적인 대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다. 민족주의는 공동체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를 중심으로, 민족주의(nationalism) 또는 국가주의(statism)으로, 또는 종교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본다. 각 공동체는 중첩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권한을 키우는데 정치성이 작용한다고 본다.

유발 하라리는 지구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 의무감 형성이 세 실존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학자들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통일된 윤리를 형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간에 협력과 상호 공존을 향한 윤리의식의 확대가 닥쳐올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것이다.

저자가 밝힌 이 책의 목표가 단지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종의 미래에 관한 토론에 참여할 힘을 얻는 것이라면 나는 이 책이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지난 역사와 예술의 의미에만 파묻혀 있었던 나의 편협한 시야를 현재와 세계의 시야로 넓힐 수 있었다. 나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모두 알고 또 참견하기에는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내가 흥미로운 분야에만 몰두해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점 편협한 시야를 가지게 되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내가 흥미로운 분야에 몰두하되, 세상 만사에 참견을 해야 그것이 이 세상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그를 통해 그것의 진정한 의미와 이상향(추구하는 방향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했다.

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세상 만사에 참견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세계의 수 많은 논점들을 분석하고 또 우리에게 전달해주려는 저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세상을 이루는 21가지 요소들을 찾아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 책의 목표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이다. 아마도 저자는 21세기에 들어서 심화되는 정보 격차를 우려한 것이 아닐까. ‘격차’는 인류가 농경을 지을 때부터 모든 문제의 근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나는 격차에 관심을 가져왔다. 모든 격차의 종착점은 결국 빈부격차가 되겠지만 시대에 따라 격차의 종류는 다양했다. 다양한 격차들은 불평등을 야기했고 평등을 원하는 인간들에게는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차에 대해 주목해왔고 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산업화 시대였고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자동화 시대’라는 말이 생겼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그 간격과, 정보화 시대에서 자동화 시대로 넘어가는 간격의 크기는 현저히 짧아졌다. 이제 내가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마냥 긍정적인 물질적인 진보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책의 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개도국은 승리 팀에 합류할 만큼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다.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방직공장 노동자와 콜센터 직원의 자녀도 얼마든지 엔지니어와 기업가가 되어 컴퓨터와 3D 프린터를 만들거나 소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전환에 필요한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과거 값싼 비숙련 노동은 세계 경제의 빈부 간극을 가로지르는 안전한 다리 역할을 했다. 비록 국가가 느리게 발전하더라도 결국에는 안전지대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빠른 성장보다 올바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 그 다리는 흔들리고 있다. 조만간 붕괴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늘 격차는 존재했지만 그 규모는 지리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점점 크기를 키워왔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생각하기에 자동화 시대는 결코 그 격차를 좁혀주지 못할 것이다. 이미 세계화, 정보화 된 세계에서 일어난 격차에 따른 불평등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 나는 이를 총칼 없는 제국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이 자동화 시대를 통해 더욱더 심화된다면 차라리 그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많은 주제들, 종교, 난민, 기술의 진보, 정치 이외에도 관련된 많은 것들은 모두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 낸 것들이며 그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인류의 행복이자 발전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저자처럼 소통을 시도하고 많은 담론들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저자의 집필 의도에 상당히 공감했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한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책 제목을 보고 딱히 끌리지 않았다. 정말 학회에서 권하지 않았다면 서점에서 안 골랐을 책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내용은 정말 좋았고, 평상시에 늘 생각해보던 것들? 혹은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을 잘 조직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나는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예상방안과 이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자 한다.

인류는 살아갈수록 태생적으로 갖춘, 주어진 뇌로는 더 이상 연산이 가능한 세계를 갖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인류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로 인하여 세계는 더욱더 복잡화되었고 편의를 맞본 인류들은 다원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세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인류는 스스로의 생물학적 뇌로는 더 이상 간단하게 통제하고 연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통제되지 않고 연산되지 않는 영역을 위해서 인류는 종이, 컴퓨터와 같은 단순기록매체나 연산매체를 넘어서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류는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이런걸 생각해보니 나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책을 읽어도, 새로운 스키마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도 잘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 오고나서 보다 많아진 정보량과 생각할 거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나중에 하면 되지’하고 넘어가거나 ‘이 부분은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읽자’ 등으로 처리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학생활을 거친 나는 바보가 되었다. 가능했던 것들을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등의 이유로 작업 시도 자체를 거부해버렸다.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며 나의 행동과 결정을 합리화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들을 평가받을 날이 오자 나는 그제서야 뒤늦게 시도하기 시작했다. 너무 힘든 과정이었다. 그 순간은 너무나 편했지만 대가가 이렇게 가혹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의 과정과 인류의 과정이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인류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개발했고 결국 거기에 의존하고 의지하며 고도화되던 인간의 인지능력 및 연산능력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류는 이에 대해서 슬슬 자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랬듯이 인류

는 다시 이러한 능력들을 되찾거나 혹은 과거보다 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결국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세션 리포트

26기 민태원

27기 원서연

1) AI와 인간의 행복

만약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역할을 기계가 하게 되어 인간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분배받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

▶ 논의

한 회원은 노동을 통해 재화를 벌여 먹고 살고,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기존의 전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했다. 그 회원은 인간은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은 일을 해야하니까 그 안에서 여가를 찾는다면 이제는 여가가 인간에게 일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성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 이야기 하며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먹방을 예시로 들었다.

다른 회원 고대 로마시대의 예시를 들면서 인간이 행복보다는 타락할 거 같다고 주장했다.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너무 발전된 사회를 보여주는데, 기계가 일을 해서 수익을 분배 받는 사회, 결국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분배를 하게 될 텐데, 이게 행복으로 연결될지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대 그리스의 예시에 대해 또 다른 학우는 우리가 일을 안해도 된다면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질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했다.

이에 대해서 처음 의견을 낸 회원은 기본 소득 방향에 대해 지적하며 기본 소득 제도가 생각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짐바브웨의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정부 관료들은 실험을 시작할 당시 사람들이 도박이나 하고 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보았던 변화가 벽화 그리기였다고 한다. 이런 예시처럼 사람들이 새로운 노동, 여가의 의미를 찾아 나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다른 학우는 AI가 대부분의 생산성을 요구하는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인간은 다른 생

산성 없는 분야에서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추측했다. 인간은 발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쉬더라도 계속 할 일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 이야기 했다. 다른 학우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의식주를 향유하는 것 말고 다른 정신적 활동을 찾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경제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이라는 효용을 다른 활동에서 정신적인 활동으로 치환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동시에 문화활동에서 더 큰 빈부격차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다.

또 다른 학우는 AI가 과연 정치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정치적 선택까지 기계한테 맡기고 정말 사회 시스템 전반에 기계에서 운영되고 거기에서 인간이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분배하게 되면 유토피아가 가능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정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보편화 된 노예 노동 덕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뭔가 쟁취해야 하고 권력욕의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유토피아가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학우는 오히려 AI에게 모든 것이 집중 되어 중앙 집권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며, 불평등이 계속될 수 있을 거라 주장했다.

1) AI의 예술은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AI는 인간의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아직 창의력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지만, 컴퓨터가 만든 음악들을 들어보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게 된다. 저 동영상 링크의 댓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컴퓨터로 만든 음악도 꽤나 사람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하라리 역시 음악은 입력과 산출을 정확히 수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취약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꼭 작곡이 아니더라도, AI가 노래를 추천하는 능력은 이미 유명한 광고를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어떤 멜로디에서, 어떤 박자에서 느끼고 있는지 일련의 역사와 데이터들을 통해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즉 기술발전으로 가능해진 “컴퓨터화된 작곡”이나 “기계적으로 음악을 추천해주는 것”은 갑자기 기술발전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음악을 컴퓨터가 작곡하는 시대가 온다면, 음악은 발전할 수 있을까? 결국 역사 속에서 쌓아왔던 데이터를 반복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 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감수성이나 평가는 어떠한 형태로 변하게 될까?

▶ 논의

이 발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과연 AI는 인간을 답습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 것 아니면 뭔가 창조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었다. 기본적으로 “음악의 발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넓은 범주에서 음악의 발전을 정의하고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음악의 발전”을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음악”을 정의하는 것도 인간의 역할이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문에 대하여 어떤 회원은 AI는 결국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게 되며,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 내려면 그 창조하는 방법까지 입력이 되어야 산출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인간의 음악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회원은 AI는 쌓아 왔던 데이터로 그 당시 사람들의 취향을 맞는 음악을 만들어 낼 수는 있겠지만 음악의 판도를 바꾸거나 혁신적인 음악은 당연히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어떤 회원은 AI가 개성을 가질 수 있고, 저자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책을 썼다고 지적하였지만, 다른 회원이 저자의 전제를 인용하며 AI라는 존재는 결국 투입한 만큼만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 회원은 AI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 인간의 역사에 기반한 데이터이며 따라서 개성을 갖게 되도 인간의 개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AI가 만든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의 대중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I가 우리 삶에 얼마나 침투하게 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논의가 마무리 되었다. 한 회원은 예술이라는 분야가 AI에게 지배되지 않는 마지막 분야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예술이라는 분야도 결국 생화학적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AI가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학우는 만약, AI가 정말 음악을 만드는 세상이 온다면 어떤 사회적 운

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지적하였다. 수익은 누구에게 분배가 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기술자, 돈이 많은 경영인이 예술에서 나오는 수익마저 가져가게 된다면 그렇게 재화가 집중되는 현상이 바람직 한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고통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곳곳에서 우리는 하라리가 공리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하라리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정의하며 허구와 실체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고통을 받는 지 의심해보기를 주문하고, 도덕의 의미를 고통을 줄여나가는 데서 찾는다. 또, 고통의 감소는 하라리가 선호하는 세속주의에서 연민, 평등과 같은 요소들을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고통의 감소, 혹은 공리주의적 세계관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인류 진보를 저해해 〈멋진 신세계〉와 같은 암울한 미래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또, 책에서 하라리가 말하듯이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고통의 감소라고 보기엔 힘들다.

그렇다면 현재의 문제들을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까?

▶ 논의

하라리가 말한 세속주의가 고통을 통해서 개념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볼 때 고통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관점은 장점이 있지만, 고통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더 나은 미래가 도래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관점을 비판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또, 고통을 주요 요소로 상정하면 고통을 어떻게 계산할까의 문제가 남아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다른 주요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

다. 또,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공리주의적 가치관이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논의 방식이 적용 가능한 범위가 넓고 논리가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의 장점을 이용해서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다. 현대 사회의 주요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가 공리주의에 부합하는 전제들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이 사회를 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기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산주의나 공동체 내의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공리주의적 세계관에 도입하는 것으로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공리주의를 신자유주의와 연결하는 것은 공리주의를 넓게 해석하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를 확장할 경우 모든 가치관을 공리주의로 환원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인데,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도, 인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산주의도 공리주의로 환원될 수 있기에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공리주의를 가지고 토론하기 보다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공리주의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 허구와 실제의 구분

하라리는 줄곧 현실과 허구를 구분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한다. 그는 탈진실의 시대에 서 허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며, 고통을 가진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봄으로써 허구의 이야기들을 비판적으로 바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책의 뒷부분에서 하라리는 고통과 괴로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통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괴로움은 그렇지 않으며, 이는 괴로움이라는 감정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안하기에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는 현실과 허구가 구별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작동하는 것 같은데, 과연 허구와 진실은 구별이 가능할까? 하라리는 과학 문헌들을 읽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토머스 쿤이나 칼 포퍼같은 과학 철학자들은 귀납법으로 만들어진 과학 지식의 체계도 엄밀한 의

미에서는 허구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과학적 실험들도 완벽히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보다는 허구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하라리는 과학을 다른 이데올로기나 이야기들보다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현실과 허구의 구분을 요청하는 저자가 현실과 허구의 미로속에 갇혀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현실과 허구는 구분이 가능한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구분해나갈 수 있을까? 만일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탈진실의 시대를 인류는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 논의

우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조지 오웰의 <1984>를 비교하며 현실과 허구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동의하지만 허구와 현실을 구분하느냐는 결국엔 본인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 달려있고, 이러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민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허구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이야기를 다수의 사람이 믿을 때 객관성, 혹은 간주관성을 획득해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과 허구의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주체이면 허구라는 하라리의 주장에 따르면 대다수의 것들이 허구라는 논리로 귀결되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하라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다수의 의견은 허구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그러한 점에서 하라리는 주변의 허구들을 분별하고 진실을 당연히 언론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종교나 민족주의같은 개념들은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인데, 이를 너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하라리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라고 주장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하라리의 의견은 전통적으로 지식을 생산해온 언론과 학계의 주장을 좀 더 신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생산된 지식이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좀 더 진실에 가깝기에 이들의 주장이 허구보다

는 현실에 더 가깝다는 의미에서 하라리가 언론과 과학을 통해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라는 주장을 했다는 의미였다. 만일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양심적인 저널리스트에게 존경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없고, 설득력있게 쓰여진 허구를 믿으면 된다고 논리가 귀결된다는 점에 반대한다며 진실과 허구를 계속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완벽한 진실을 찾기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상이한 관점의 언론들간의 경쟁을 통해 진실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효율적인 정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서 갈등이 치열해질 때는 시민들간의 타협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제 인터넷, SNS라는 공론장 속에서 하나의 의견, 합의가 일어날 수 있는데,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타협에 대한 교육,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교육이 탈진실의 시대를 헤쳐나갈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원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합의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고 썰전같은 방송이나 알릴레오, 홍카콜라같은 방송을 통해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지기에 이러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교육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비용을 내고서 뉴스를 받는 것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는 하라리의 가정 하에서 빈곤층은 진실로부터 괴리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4) 세속주의

하라리는 세속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속주의 규범과 종교가 충돌할 때 후자가 양보를 한다는 전제 하에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주의 규범은 진실, 연민, 평등, 자유, 용기, 책임같은 가치들을 바탕으로 한 것일텐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상이한 규범들이 충돌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하라리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예컨대, 바가바드기타에 나오는 아르주나는 전쟁에서 친척들을 죽여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전사로서의 용기, 책임이라는 가치와 혈연에 대한 연민이라는 가치의 충돌로도 이해할 수 있다. 아르주나의 경우에는 자신의 다르마에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는 허구인 이야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상이한 세속주의 가치들의 충돌은 현실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대립은 정치에 있어서

언제나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는 점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세속주의는 상기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인류가 추구해나가야 할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세속주의 가치들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세속주의의 규범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 논의

우선 긍정적인 가치들을 주장하는 세속주의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았다. 대다수의 회원들은 세속주의를 종교로부터 해방되어 개인이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가치관으로 여기고, 이를 특정한 가치들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니체같은 세속주의자도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속주의를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었다. 그렇기에 세속주의를 특정한 가치를 우선시하려는 하라리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9-1 JSC Archive

- 나는 누구인가

마음의 과학

스티븐 핑커 외

“마음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인간의 뇌 어떻게 작동할까? 정말 태어난 순서가 성격을 결정할까? 알츠하이머병은 치료될 수 있을까? 행복도 유전될 수 있을까?”

1. 독서노트

26기 김향연

뇌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남들이 얼마나 풍족한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이지요. 남들은 우리의 행복 등급을 정하고, 나 자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기를 희망할 만한 것이 무언인지 알려줍니다. …… 즉 자신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좀 더 나으면 행복하고 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 행복의 또 한가지 역설은 손실이 이익보다 더 예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퇴보할 때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전에 우리가 가졌던 것이 우리가 무엇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훌륭한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마음은 무엇일까? 스티븐 핑거는 우리가 진화하면서 적응한 자연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설계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적응과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라마찬드란은 인류의 발전, 특히 언어의 형성은 상당수 모방과 흉내 덕분이라고 말한다. 결국 그 역시 앞서 스티븐 핑거의 자연선택처럼, 우리는 모방과 흉내를 통해 적응하고 배우며 발전했고, 우리의 마음도 이에 맞추어 진화했다고 설명하는 것 같다. 사실 모방은 매우 중요한 행동이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시절부터 우리는 삶에 적응하기 위해 무언가를 ‘따라하는’ 행위로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개인의 마음,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외부로부터의 영향인 것일까? 주변 상황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립된 것일까?

책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선택받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는 풍족한 환경이라고 이해했다. 성공한 일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성격이나 유전자, 집안 배경을 이유로 상황을 설명한다. 선대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였고, 자신의 자식도 같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이해할 때, 외부의 상황을 강조하여 설명한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 때문에 나쁜 상황에 처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 차이는 개개인의 마음과 생각

에 영향을 미친다. 조지프 루드는 공포증 역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경험을 통해 습득되어 뇌에 저장된 것이라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과 영향이 아무리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나는 인간 본연의 의지에 이를 이겨낼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환경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결국 개인의 몫이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고 어떠한 일의 결과를 온전히 개인의 능력과 의지로 돌릴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데 개인과 환경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필립 짐바르도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익명성 뒤에 잔인해진다. 그는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악이 탄생한다고 설명한다. 나는 이것을 읽고 한나 아렌트가 떠올랐다. 유대인 말살을 저질렀던 독일 나치의 친위대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저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었다. 결국 악의 근원은 평범한 곳에 있었다. 그렇다고 아이히만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반인륜적인 지시, 행위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누구든 악의 평범성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아이히만의 죄이다. 지금도 곳곳에 제2, 제 3의 아이히만이 존재한다. 인간으로써 '사고'하지 않는 것, 마음을 가꾸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성찰하여 발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실 책에서 '마음'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했다. 하지만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이것을 측정하여 다음을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마음에 대해 알고, 행복해 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마음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마음의 과학’은 옛지라는 지식인 재단에서 출판한 마음에 관한 논의들을 모은 책이다. 마음에 대해 연구하는 16명의 연구자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연구자는 다양한 분야에 속해 있는데 과학 분야, 인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인간이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마음’이라는 주제는 인간이 관심 갖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주제가 아닐까 싶다. 인간은 마음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성격, 행동의 원천, 인식 등등이 포함된다. 어쩌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 연구하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만약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내서 그것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목적이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사용해서 인간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려는 목적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어디서 왔고 또 어떻게 의사결정 하는지 알 수 있다면 좀 더 합리적이고 갈등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연구는 챕터 3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이다. 나는 남매가 4명이기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에 따라 성격이 형성된다는 주제는 인상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프랭크 설로웨이가 말하는 가정이 개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탄생해서 사회화되는 과정에 가정이라는 환경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프랭크 설로웨이는 형제들 간의 순서에 따라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흔히 공유하는 생각으로 둘째가 힘들다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맏이보다는 둘째가 좀 더 힘들고 눈치가 빠른 경향이 있다는 말이 있다. 또한 막내가 사랑받는다는 말처럼 형제자매 간에 대한 성격과 위치에 대한 말은 예전부터 유행하였다. 이를 프랭크 설로웨이는 좀 더 집중적이고 실험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형제들 간의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자매들 간은 좀 더 자유로우며 외동은 경쟁이 필요 없기 때문에 통제된 실험 환경일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형제자매만 봐도 성격이 제 각각인데

이러한 성격 차이가 무엇보다도 가족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면 형제자매가 4명인 집에서 막내인 사람들은 성격이 비슷해야 한다. 물론 프랭크 설로웨이의 연구 저서인 타고난 반항아를 읽어봐야 알겠지만 내가 지금껏 겪어 왔던 사람들에 의하면 형제자매의 위치에 따라 성격이 좌우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정 내에 위치가 같다면 서로에 대한 많은 공감이가 가능할 것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울 뉴런이 좀 더 활발하게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가정은 어떨까 싶다.

책에서 다룬 마음의 형성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는 이제 이 시대의 질문이 ‘인간의 기원은 어디인가’ 에서 ‘인간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로 변화하는 것 같다. 나 또한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고자 한다.

책을 읽고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대가 왔다는 게 새삼 놀라웠다. 사랑, 행복, 도덕, 종교와 같은 비과학적 영역까지 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면서 전주에 읽었던 “21세기를 위한 21세기의 제언”에서 말했던 우리의 감정까지 파악하는 AI가 떠올라서 무섭기도 했다. 이 책은 16명의 학자들이 마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놓고 있는 책이다. 그 중에서도 몇몇 흥미로운 연구들에 대해서 써보고자 한다.

스티븐 핑거 <인간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는 인간의 생각은 ‘사회화의 산물’이라는 통론을 반박하고 있었다. 강한 열정, 시기심, 복수 등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마음의 부분들도 조상들의 문제 해결책이었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마음이 물리적 대상을 다루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뇌는 서로 다른 영역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는 인터넷의 작동방법과 유사하다고 한다. 이런 측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보로 작동하는 절묘하게 가공된 장치인 ‘마음’이라는 영역이 정말로 생물이 아닌 비생물, AI로봇과 같은 존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라마찬드란 <거울 뉴런과 모방 학습>에 나온 “거울 뉴런”의 존재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고 본다. 거울 뉴런의 존재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남의 의도를 읽고, 이해하고, 타인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AI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은 유전적이고 자연선택이라는 기조와 반대에 있는 연구들도 흥미로웠다. 프랭크 설로웨이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서 출생순서가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마음DNA가 있다는 연구들 보다는 환경적으로 형성되는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미의 경우 책임감 있는 성취자의 모습을 많이 보이며 동생의 경우 급진적인 혁신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경험 상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심적으로 공감 많이 됐다. 마찬가지로 환경의 영향력에 더 집중한 필립 장바르도<악의 심리학> 부분은 가장 흥미롭게 읽은 것 같다. 왜 선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를까, 그 원인을 이 연구자는 DNA나 호르몬 같은 유전적 형질에서 찾지 않고 환경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선택 받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공사례를 스스로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하기에 집안의 성격, 유전자, 유산을 근거로 상황을 설명하고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의 유별난 행동을 이해하는 데 외부의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다. 나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모두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탈 개인화가 이루어졌을 때 악이 탄생한다고 하는데, 스탠퍼드 감옥실험은 익명성과 권위라는 특수상황에서 개인이 얼마나 야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런 연구를 보면 개인의 성격이 발현되는 데 있어서 환경적 요인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데이비드 리켄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계속 극단적인 환경론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형질을 결정하고, 양심, 공감, 이타주의와 같은 도덕적인 영역도 결국엔 생존을 위한 자연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데이비드 리켄 역시 ‘육아’라는 환경적 요인을 강조했다. 그는 영웅과 사이코 패스가 한 유전적 가지에서 나온 두 잔가지라고 말한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내내 들었던 의문을 해소했다. 모든 것이 유전적 형질에 따라 미리 결정된다 하더라도 분명 후천적인 환경의 요인도 있을 것이다. 사이코 패스나, 영웅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몫이고 우리 환경의 책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틴 셀리그먼이 말한 <에우다이모니아:좋은 삶>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 심리학과 생명과학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비관적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많다. 이미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었는데,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렇기에 내가 가진 장점도 미리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자신의 대표 감정을 알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재편하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한다. 내가 원래 타고난 성격과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세션 리포트

26기 민태원

28기 김서연

1) 행복의 구성요소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는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이라는 연구 대상에 대해서 구분한다. 첫째는 즐거운 삶, 즉 긍정적인 감정을 가능한 한 많이 지니고, 우리가 깔깔거리며 웃는 행복이 있고 두번째로, 좋은 삶, 즉 에우다이모니아로 명상이나 좋은 대화를 통한 행복,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몰입을 통한 행복이 있다. 행복은 모호한 단어이기에 다양한 개념이 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의 두 가지 구분 혹은 이에 벗어나서 행복에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논의

이 발제에 대해서 나온 의견의 두 가지 방향성은 인간의 행복이 비교에 근원을 두는지 아니면 절대적인 행복을 위한 변수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였다.

비교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비교가 행복의 구성 요소이며 사회 안에서의 상대적인 서열이 행복에 연관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수치화하면서 행복이란 가치에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가진 게 행복을 재는 단위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어떤 회원은 로직의 행복 기계에서 볼 수 있듯이 기계에 들어가면 현실을 잊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자유나 현실 관념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른 회원은 이에 대해서 사람마다 자유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비교 대상이 행복을 재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남과의 비교도 있고 자기 자신의 과거와도 비교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복을 호르몬 자체에서 볼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언급되었다. 약을 투여하거나 유전자의 발현과 같은 생화학적 기제로 행복을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다. 나보다 더 큰 단체에 속해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으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비교를 하다 보면 결국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대답이 있었다. 상대적인 요소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날씨와 같은 걸로 행복을 느낀다면 비교로부터 오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행복의 절대적인 본질이 있을 것이라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수치화나 비교만을 통해 이뤄지는 행복이 결국 또다른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이나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뿌듯함에 대한 행복이 비교 대상이 없어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타인이 필요한 행복이 있고 타인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하여 동시에 논할 수 있었다.

2) 재능과 노력

수의 감각에 있어서 스타니스라스 드옌은 수 능력에 개인별 차이가 나타나는 상당 부분이 '재능'의 차이와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기본적인 재능, 기초적인 수 감각, 수 관계에 관한 직관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는 교육이나 노력과 같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재능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부가 재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논의

재능차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개인의 재능차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에 대부분의 구성원이 동의했다. 예시로 매일 같은 양의 팔굽혀 펴기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르다면 이를 재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재능이 있어서 그 일에 흥미를 느끼기에 더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능차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능이 우선시되지만 노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노력과 재능이 반반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서 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능이 있더라도 김연아나 박지성처럼 연습량으로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둘 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나라에서 충분한 뜻을 함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재능으로 내신

과 올림피아드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노력도 재능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같은 상황에서 해내는 사람과 못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에서 의지와 노력은 중요하기에 재능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노력을 하나 마느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노력은 재능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나 지역 균등과 같은 것이 반영되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재능 자체보다 노력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우리의 풍토를 엿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3) 21세기의 종교

과학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에 바탕이 되는 기본 전제들은 위협받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종교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 사회 전반적으로는 무신론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18장에서 볼 수 있듯이 샘 해리스, 리처드 도킨스같은 무신론자들은 자진해서 종교를 비판하고 맞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조너선 헤이트는 종교를 반드시 타도의 대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나오듯이 종교를 통해서 나온 도덕 규범들은 사회를 결속시키고 아노미를 감소시키며, 신앙인들은 관용적이고 자선을 베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효용을 가져온다. 또, 종교의 대척점에 서있는 무신론자 세력들도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사실은 인간이 종교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 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종교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중심에 서있으며 비종교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종교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게 될까? 종교의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역기능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까?

▶ 논의

우선 종교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직까지는 다른 종교와 대화를 거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많기에 대화가 불가능하면 갈등은 필연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인물들을 배척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면 종교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만 상충되는 교리들이 갈등하는 상

항에서 다른 종교인들을 배척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인간 정신의 축에서 취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렇기에 미래에는 규범화하는 기능이 있는 시민단체로 바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시민 단체에서도 외부인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듯이, 현재의 종교의 문제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 종교와 시민단체의 차이는 본인의 믿음이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이나 신적인 존재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는데 반해, 시민단체는 사회적 합의, 사회 과학, 데이터를 근거로 자신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기에 종교에서 말하는 규범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종교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신에 대한 믿음과 교리에 충실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필연적이기에 역기능을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4) 인간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인지과학의 발달로 알게 된 인간의 모습은 이전까지 우리가 그려왔던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이전까지 서양 철학에선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 이성적인 동물로 고려해왔지만, 조지프 르두나 조지 레이코프같은 학자들은 인간의 생각 대다수는 무의식적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성적인 동물로 인간을 정의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세운다. 여기에 대응해 책에서 나온 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간이라는 개체의 특징을 정의한다. 스타니슬라스 드엔의 경우, 수 능력의 차이에서 인간만의 특징을 찾으려고 하며, 니컬러스 험프리는 성찰 능력의 성장이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

과연 인지과학자들이 말하는 차이들이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분지을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차이가 인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개체로 만들었고, 인간을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 논의

우선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인간은

기억의 용량이 동물과 비약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허구를 믿는다는 점에서 특징지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19-1 JSC Archive

- 나는 누구인가

자유의지는 없다

샘 해리스

1. 독서노트

27기 원서연

샘 해리스의 <자유 의지는 없다>는 너무나 바쁘고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조금은 색다른 의미로)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의 게으름도 너의 선택의 결과들도 다 결국엔 너의 의지가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거 같다.

샘 해리스의 주장은 시험기간 잠깐 잠이 들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 맥주를 마시러 가는 소소한 일탈들을 정당화 해줄 지는 몰라도, 여전히 범죄를 정당화 하기는 힘들다. 샘 해리스는 7장 <도덕적 책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하며, 관련된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논의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가할 수도 있는 위협과 더불어 죄와 무죄를 정확히 판정하는 형법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처벌이 “억제 또는 재활의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샘 해리스의 이런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있으며, 그가 그의 주장이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저지른 범죄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샘 해리스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범죄도 범죄자가 의도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의 범죄는 사회에 많은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며, 타인을 해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억제하고 처벌할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17세기 계몽시대 때, 개인의 자유를 침송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논리가 자유 의지의 존재를 부정하고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만큼 사회적 안전과 개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 덕분에 범죄자들이 재사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기술적, 의술적 도구를 제시하게 되면서, 사실상 범죄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는 약물적, 기술적 도구를 사용하여 범죄자들을 교화하고 재사회화 시키는 것이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는 어떤 사회에서든 시간이 지나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완

벽히 재사회화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병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자유 의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샘 해리스의 주장처럼 정말 자유 의지가 없을지라도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도리,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샘 해리스의 주장이 굉장히 정교하고 설득력 있다고 평가한다.

책을 읽으면서 영화 ‘굿 윌 헌팅’의 마지막 부분이 떠올랐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으며 대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지속하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정신과 의사 로빈 윌리엄스는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주인공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연다. 이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저자의 말처럼 우리를 역설적으로도 자유롭게 하는 것 같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우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잘못들, 부족함, 나약함까지도 우리와는 어떠한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자유의지의 부재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보복감, 분노로부터도 해방 시켜주며, 사람들이 추구하는 통제감이라는 것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의지를 환상으로 치부하려며 타파하려는 저자의 노력은 박수를 받을 만하고, 또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았다. 일단, 무엇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악마의 증명에서 이야기하듯, A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이 A가 아니라고 보여줘야만 A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책에서도 말하듯 저자는 뇌 피질에서 녹화한 정보를 통해 80퍼센트의 정확도로 결정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20퍼센트의 부정확성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20퍼센트는 자유의지가 아닌 다른 요소들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자유의지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소거시키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 저자는 이어지는 부분에서 의식적 자각, 선택, 의지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불가사의한 과정의 결과라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자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또, 저자는 자유의지의 문제가 우리가 중요시하는 모든 것들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예컨대, 저자는 자유의지의 부재에도 사법 체계 자체는 무리 없이 작동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법적 처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범죄자의 의식적 의도이고 이는 우리

마음의 전반적 성질을 반영하기 때문이며, 이는 처벌로 억제가 가능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유괴나 살인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행위를 수반해야만 발생하는데, 저자는 이러한 행위의 수반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 혹은 의식에서 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을 차단할 때에도 저자가 말하듯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불가사의한 과정'이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그러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정치에 있어서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현존하는 정치제도들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이 직접 국정 운영에 참여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전제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대전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특히 투표의 경우, 범죄와 달리 의식적 숙고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큰 생각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가능한 것이 투표이면, 과연 유권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자유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

일요일 오전에 작성하기로 한 독서노트, 방금 라떼와 고민하다가 결국 고른 아메리카노.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간다. 그렇지만 내가 내리는 선택들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걸까? 나는 이러한 질문에 당연히 ‘나의 (자유)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왔다. 일요일 저녁에는 선약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독서노트를 작성해야겠다고 다짐했고, 프렌치토스트와 함께 먹기엔 라떼가 느끼할 것 같기도 해서 아메리카노를 골랐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스스로 내린 선택들이기에, 이러한 결정 역시 내 ‘자유 의지’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하지만 <자유 의지는 없다>에서 샘 해리스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부정하며, ‘자유 의지는 환상’이라고 주장한다. 해리스에 따르면 의지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며, 생각과 의도는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배경 원인들에서 나온다. 더불어 저자는 인간은 그러한 원인들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리학자 벤저민 리벳의 실험을 근거로 든다. 벤저민 리벳의 실험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움직이기로 결심했다고 느끼기 300밀리세컨드 전부터 뇌의 운공피질에서 활동이 나타난다. 게다가 인간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인식하기 700밀리세컨드 전에 뇌피질에서 일어나는 뉴런의 활동을 통해 인간의 결정을 80퍼센트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인간이 의식적으로 선택을 내리기 이전에, 인간의 뇌가 선택을 이미 결정해놓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하는 모든 것이 사실 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 초래되는데, 정작 그 사건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니 조금은 무서웠다.

그렇지만 샘 해리스의 주장을 과연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는 앞선 원인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간은 그 원인들에 책임이 없거나, 그 원인들은 우연의 산물이므로 인간은 그것들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간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2000년 미국 케셔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에서 두 소녀를 질식사시키고 어머니를 강간한 코미사레브시키는 ‘자신은 강도이지 살인자가 아니며,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려 의도

한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즉 코미사레브시키의 범죄는 그의 의지가 아닌, (그가 통제하고 의식할 수 없는) 앞선 원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까닭이 과연 코미사레브시키의 죄를 덜어낼 수 있을까? 심지어 코미사레브시키의 해명에 샘 해리스는 “이렇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판단을 주저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속사정이 전혀 설득력이 없게 느껴졌기 때문에, 판단을 주저하게 된다는 해리스의 말에 더더욱 공감할 수 없었다. 물론 이에 저자는 “인간은 사람들을 스스로 행하는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악행들에 책임이 있다고 여기며, 그런 범죄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반박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 의지를 당연히 여기는 사법 시스템이 이미 확립된 현대 사회에서, ‘자유 의지가 없다’는 해리스의 주장을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해리스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으나, 그의 주장을 오늘날 사회에 완벽히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세션 리포트

23기 조성근

26기 김향연

1) 범죄와 ‘자유 의지’

2000년대, 국내 법원은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하여 기소된 범죄자에게 12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은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감안해 12년형으로 감형했다고 되어 있다. 범죄자가 범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등은 음주 성범죄자의 감형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이 술을 먹인다.”, “미운 놈 때리고 싶으면 술 마시고 때려야 한다.” 등의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범죄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사실이 감형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형법 제 10조 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의한 행동, 즉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에만 책임을 묻는다. 자유의지가 아닌 행동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술을 마신 상태는 심신미약 상태로서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이는 생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른 행동들은 생리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순전히 개인의 의사 결정, 즉 자유의지로 된 것이어서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 걸까?

“범죄자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생리학적 결함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결함에 의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근대범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체자레 롬브로조의 주장이다. 그런데 생리학적 원인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많이 규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의 원인이 선천적인 유전병에 의한 것임이 규명되기만 한다면, 그 행동은 자유의지가 아니므로 더 이상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뇌 손상의 증거를 통해 범인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변론으로 배심원들이 감형해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범죄에 대해 생리학적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누구도 가둘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범죄의 모든 생리학적 원인이 규명되면 책임을 묻는 징벌적 구형은 사라지고 치료 및 교화 목적의 처방을 해야 한다. 범죄 행동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생리학적 원인을 모두 규명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 논의

먼저 이에 대해서 생각해볼만한 거리가 있고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에 대한 것을 자유의지와 연관지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윤리의식이랑 어긋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것은 가능여부를 넘어서 옳냐 옳지 않느냐 등의 당위의 문제로 앞으로 사회의 논의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유의미한 이론과 주장이지만, 이걸 그 자체로 전체로 하여 설명하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사법시스템 자체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있고 거기에 입각하여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또한 교화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때에도 교화와 치료의 처방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기도 하고 당위적으로 보았을때도 그렇게 되면 안될 것이라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심신미약의 감형에 대해서는 동의에 대한 문제이며 감형을 해주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의지가 없고 그 이유를 생물학적인 이유로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해지고 사회적 격리를 위해서라도 감형을 해주면 안되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쳐도 감형은 안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런 논리로 가게 된다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피검사 등을 통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한다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작가의 이러한 사고는 사전적 예방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 사후적 처방 및 합리화에 대한 핑계가 되면 안된다고도 하였다.

다음 논의는 그러면 술에 대한 심신미약과 가정폭력 등에 대한 심신미약 등을 다

똑같이 처벌해야하는가? 아니면 같이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나아갔는데, 이 문제는 생화학적 측면에서 봐야할 것이고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층위에 놓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술과 가정폭력 등에 대한 심신미약이 왜 서로 다른 온도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와 참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 참작은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자유의지는 없지만 변화는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해를 하는 것과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같이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조현병 환자의 살인사건 즉 강북 삼성병원은 어떻게 보아야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왔고 이 책의 저자의 논리는 결국 미래에 가면 기억을 조작하는 약이 기술의 발전으로 나올 경우 여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자유의지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하고 이 작가의 의도에 전적으로 공감하진 않더라도 의문을 가져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게 내 의지가 아니더라는 저자의 의견에 대해서 가우뚱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원인이 있는데 외부적, 생리학적 등 다양한 원인을 받아서 온전히 내 백퍼센트 순수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로 해석하면 받아들여진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2) 인간 사회의 평등

진화론과 자유의지 부정론은 많은 측면에서 비슷하다. 첫번째로는 센세이션한 파급력이 비슷하고 두번째는 이를 인정해버리면, 그 동안 쌓아왔던 학문체계가 무너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자유의지 부정론은 진화론 2세대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인류가 쌓아온 모든 것은 자유의지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몰즈와 노직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미 어느정도 느껴왔던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학문과 당시의 세계관의 근간을 뒤흔드는 진화론이 도입이 되었어도 결국 인류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이념, 관념 혹은 정신)

을 추구해야 하는가?

동서양 구분없이 인류는 평등을 추구해왔다. 신은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는 기독교적 세계관, 동학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거쳐오며 인류는 평등을 추구했다. (예-소련 유전자) 우리는 어떠한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아니면 평등 자체를 추구하지 않아도 좋을 수 있다.)

▶ 논의

이 논의가 생각해보لمان한 점이라는 의견이 먼저 나왔다. 애초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도 없는 것이고 투표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것도 없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작동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의문과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고 했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자유의지가 없다고 전제를 해버리면 운이 좋은 사람,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태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할 것이라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17세기, 18세기에 나온 개념이기에 루소는 인권을 몰랐고 인권이라는 것도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기에 나온 권리인데 그렇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권이 없어도 되고 동물권보다 우위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자유의지가 없으면 동물과는 다를 것이 없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했을 때 역으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도 나왔다. 합리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런 논리면 해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자유의지가 없다면 과학이 철학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는 왜 존재하고 왜 행복해야하는가 사회가 어떻게 해야하는가는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했지만 이제는 과학에서 그러한 질문을 해야하지 않을까에 대한 예측이 나왔다. 또한 모든 것이 뉴로사이언스로 설명되는 시대가 온다면 과학이 철학을 대체하고 결국은 인류는 과학을 추구하지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과학이 더 풍성한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철학을 과학이 대체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하며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가치판단을 하고 우리가 종교대신 과학을 숭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를 끝내게 되었다.

또한 이런 논의가 계속 발전하면, 사회에서 평등이 굳혀져갈 것이고 특히나 경제적 평등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CEO의 고액연봉도 그 사람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린 의사결정의 성과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지가 강화되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고 롤즈와 같은 논의가 많아지며 결국 살기 좋은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나왔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사실로 들어났을때도 국가가 존재할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생각보다 막상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바뀔 것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굉장히 의미있지 않냐는 의견과 함께 논의를 끝내었다.

3) 자유 의지는 존재하는가?

자유의지란 무엇일까? 자유의지는 과연 실재하는 것일까?

▶ 논의

저자는 자유의지란 없다고 말한다.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인식 자체가 착각이라고 주장한다. 사고와 의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배경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환상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논의는 두가지로 나뉘었다. 자유의지는 존재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행동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여타 동물들과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논의에서 말했듯이, 나는 인간은 이성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에 다른 동물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의지 없이 행동한다면 저자의 말처럼 도덕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지금껏 진행되어온 일련의 사건이 우리에게 세대를 걸쳐 전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벗어나 유전적으로 내포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동과 의식은 외부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의 개인적 특성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이것 역시 사회 안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고와 의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배경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의도 자체가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실제로 자유의지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려하려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들을 인식해야 하고, 그 요인들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와 연관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로 인해 저장된 유전 정보로 사고가 진행되고 이해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논의를 종결했다.

2019-1 JSC Archive

- 나는 누구인가

나의 타자

슬라보예 지젝 외

“나는 타자이다.”

1. 독서노트

28기 백혜림

‘나의 타자’는 나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책이다. 그럼에도 공감되는 몇몇 부분들이 있었다. 실제로 나는 일상에서 친숙한 것들을 때때로 낯설게 느끼곤 했었다. 갑자기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이 낯설어진 적도 있었고, 나 스스로가 낯설었던 경험도 있었다. 가끔 느끼는 이 묘한 낯섬을 책에서는 낯선 친숙함으로 알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분을 느끼는 이유도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개개인 고유의 정체성은 타인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한다.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은 타인이 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 대목에서 완전하고 확고한 정체성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체성이 타인이 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면, 나에게도 수많은 정체성이 존재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부모님과의 관계속에서의 나, 친구와의 관계속에서의 나, 동생과의 관계속에서의 나는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것과 내가 타인에게 받아들여진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 모두가 정말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종종 낯섬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정체성은 사회문화적인 제반 요건들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성별, 나이, 국적, 학력에 따라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성별에 의해 결정되는 정체성만 하더라도 사회가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나이의 경우에도 매 해 달라진다. 나의 고유한 정체성 하나를 찾기 보다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지에 답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이 질문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지, 원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을 갖지 않는다. 사회과학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 없이도 세상을 그런대로 잘 설명해왔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경제학 같은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 효용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어나가는지에 대해 연구하지, 사람들이 경제적 효용을 얻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과학 이론들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생각해왔던 전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요구한다. 인간의 합리성, 이성의 보편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치적, 사회과학적 현상 앞에서 책 '나의 타자'는 다시 한 번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책의 저자들은 우리의 욕망과 정체성이 타자로부터 형성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한다. 이들의 주장은 인지과학자들의 주장과도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주체가 결핍으로 부터 탄생하며, 주체 자체가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기 보다는 환상을 통해 대타자에 의거해서 우리의 욕망과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한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또 우리의 정체성이 타자와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분리와 재생성의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세미나에서 읽은 '마음의 과학'에서도 학자들은 자아정체성이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자신에게 적용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정신분석학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다.

어쩌면 인터넷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선 대타자를 통해 우리의 욕망이 형성된다는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론을 받아들여야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유행의 경우에도, 우리는 이전까지 별로 욕망하지 않았던 것들을 대타자를 통해서 욕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생활에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도 SNS에는 거리낌 없이 자신의 사적인 삶의 일부를 올린다는 점은 우리의 욕망이 대타자로부터 만들어지고 비롯된다는 정신분석학의 주장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신분석학을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정신분석학의

대전제에서부터 우리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많이 찾을 수 있고, 정신분석학의 관념론적인 특성은 반증을 요구하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그저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신분석학의 설명력이 수많은 인문학자들과 사회이론가들의 담론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정신분석학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의 타자>는 쉬운 책은 아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라깁주의 석학들이 서술한 책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책은 이런식으로 결핍을 겪는 주체와 주체 내부의 상처와 마주하기, 미완의 나를 총체적 나로 끊임없이 지향하기, 실패불가피한 나를 만나는, 즉 “지속적인 진자운동을 통해서 타자(분열되어있는 내 안의 타자들)를 동일자(the same)로 만드는 무한한 과업의 수행:을 이야기한다. 즉 “정체성으로 가는 여정의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고 그것들의 철학적 혹은 논리적, 그리고 성적 함의를 살펴보는“ 탐색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신분석, 젠더연구, 비교문학, 현대철학을 대표하는 7인의 라깁주의 석학들이 사회구조에 대항한 주체의 저항 가능성 등을 어떻게 이론화하는지에 토대를 두고, 부분적 이나마 국내 출간되지 못한 라깁의 여러 세미나의 내용들을 통해 정체성과 동일화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엿볼 수도 있으며, 강박의 망상적 실재를 이해하게도 되고, 혹은 성차에 대한 오랜 논쟁적 논의를 지닌 페미니즘의 이론적 무기를 발견할 수도 있게 해준다.¹⁾

이러한 라깁주의 석학들의 방법론 혹은 관념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무슨 말인지는 대강 이해가 갔다. 현대 사회는 모순적이다. 우리는 주체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다. 또한 모순적으로 우리의 주체성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이 사회구조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체성을 가지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기 불편한 것들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아마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과연 우리의 삶에 주체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까? 굳이 우리가 우리의 주체를 추구해야하는가?를 먼저 깊은 성찰을 해야할 것이다. 주체성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체성을 가져야한다는 강박관념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일수도 있다. 사실 주체성을 어느 부분 포기한다고해

1) 리뷰 - 나의 타자 (슬라보예 지젝, 러셀 그리고 외) 참조.
<https://m.blog.naver.com/kuju/221306539788>

도 그것이 삶의 질을 과도하게 떨어트리거나 민주성 자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본질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하고 불편하더라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 세션 리포트

26기 김향연

28기 최희찬

1) 정신분석학에서의 남성과 여성

라캉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자아와 대타자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욕망은 결핍을 메꾸는 건데, 이 욕망은 타자에 의해서 형성된다. 주체성이란 자아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즉 남자-여자라는 상징으로 인해 형성된다. 실재계에선 이와 다르다 남성-여성이라는 대립이 존재하지 않고,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능하다.

상징계에서 남성-여성이라는 타자에 의한 주체화가 지속된다면, 여성은 언제나 타자에 불과할 것이다. 묻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남성의 타자로서의 여성은 나쁜 것인가? - 이에 따르면 남성도 여성의 타자로 기능할 수 있다.

2. 남성의 타자로서의 여성이 나쁜 것이라면, 여성의 '실재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
- 남성의 타자로부터 극복해서 여성의 자아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 논의

본 도서는 라캉철학을 다룬다. 라캉철학은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속에 형성되는 자아를 다룬다. 자아란 본연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속에서 성장하고 삶을 영위한다. 인간의 욕망이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타자의 욕망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고 모든 자아는 언제나 타자화 될 수밖에 없다.

라캉철학은 페미니즘에서 많이 인용된다. 기존의 사회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타자로서 기능하고, 남성의 욕망이 여성의 욕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슬라보예 지젝은 이러한 과정을 비판한다. 팜프파탈의 예를 들어 남성적 환상의 실현이라는 타자화 된 여성은 오히려 남성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남성을 타자화하는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을 보인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발제를 진행하였을 때 우리가 나는 다양한 발언들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여성이 남성의 타자로서 기능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사회속에서 남성의 타자로서 여성이 기능하는 것은 그 의미에서 종속적이고 배제적인 일종의 권력관계가 내포해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반대로 여성이 남성의 타자로서 기능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깡철학도 마찬가지로 프로이트적 개념으로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화 하고 있는 것이 첫번째 문제이며, 두번째로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젠더개념을 고려하지 못한 철학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다.

2) 낙태

현행 헌법은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낙태한 부녀와 낙태한 의사 모두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 이 헌법은 헌법 불합치판정을 받았고, 헌재는 2020 12월까지 이 조문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전까지 법은 유효하다). 단순 위헌과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낙태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 중 4명의 재판관은 22주 전까지는 낙태에 대해 여성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임신 22주 이후에는 낙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외로, 합헌 의견 2명은 여성 자기결정권이 태아 생명권보다 앞서는 특정 기간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낙태 전체가 합법화될지는 추후의 과제이다. 헌법은 태아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정받는 순간부터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정도 침해될 수 있다라고 본다. (생명권은 현행 헌법상 가장 주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판결의 경우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봄)

헌법은 모든 시민이 구성하므로 여자와 남자 함께 구성한다.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내용도 그러하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여성에게만 적용이 된다.

국회는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두 권리를 적절하게 조화해 새로운 법안

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바로는 언제부터 태아의 생명권이 형성되는지가 규정되고, 어느 정도 임신 기간이 흐른 후에 하는 낙태는 범법행위의 영역에 속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은 모든 시민이 구성하는 헌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여성에게만 적용된다. 위의 예상을 전제한다면(즉,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언제부터 형성되고, 언제부터 낙태가 금지되는지에 대해서 남성도 함께 공적 개념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

▶ 논의

다음으로는 시사적인 측면에서 낙태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추후 낙태에 관한 새로운 입법에 남성의 참여가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다. 하나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낙태에 관한 담론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이 존재했다. 이와는 반대로 전자는 타당하지만 생명권에 관해서는 종교나 남성들의 의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이 존재했다.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력단절이나 일종의 한국적인 문화에서 여성배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저출산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현재 한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성 차별적 문화에 대한 심각성을 적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현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들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담론이 일종의 공론장에서도 적용되어 조금은 여성비차별적인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3) 정체성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 구조에 짓눌려 그것이 설정하고 있는 수많은 규칙들과 제도, 혹은 문화라는 관습적 양식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는 고통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결국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 낸 가면과도 같다. 그런데 나라는 실체는 정작 그 가면 뒤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주체이기에 분열된 나는 문득 스스로가 낯설어지면, 그 간극으로 고통과 불안을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란 실재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고통과 불안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 논의

남성의 타자로서의 여성, 여성의 '실재화'?

책에서 설명하듯이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성이 타자로서 인식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타자인 남자라고 할 수 있다. 라캉은 욕망은 욕망을 욕망하려는 욕망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마지막에, 내가 어떤 존재로서 그 욕망을 표출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성별을 떠나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은 날 안정적이게 한다. 하지만 속해 있다는 것은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제한시키기도 한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 구조에 짓눌려 그것이 설정하고 있는 수많은 규칙들과 제도, 혹은 문화라는 관습적 양식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는 고통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결국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 낸 가면과도 같다. 그런데 나라는 실체는 정작 그 가면 뒤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주체이기에 분열된 나는 문득 스스로가 낯설어지면, 그 간극으로 고통과 불안을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란 실재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의 고통과 불안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서는 외향적일 수도 있고 어디서는 내향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논의의 이유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와 내가 원하는 바가 고통을 만든다고 본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으로부터의 결핍이기 때문이다. 결국 숨겨진 모습과 보여주는 모습 모두가 내 모습이다.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에 나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이 모습은 각각의 욕망에 대한 정체성의 발현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체성에 대한 발현이다. 그렇다면 정체성은 실재하지 않는 것

일까?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게 내 모습인가하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존재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닌 것일까?

논의를 통해 우리는 결국에는 계속된 인지부조화가 불안과 고통을 만든다고 보았다. 다른 두 모습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본인을 실격된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그 사람이 만든 외적인 정체성과 본인이 생각한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외부로부터 받은 것일 수도, 내면으로부터 표출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려면 외적정체성과 스스로의 정체성을 일치했을 때 그나마 고통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치보단 인정의 문제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남들이 보는 나의 정체성과 내가 나를 보는 정체성이 둘 다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인정이란 것은 남과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은 곧 자신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2019-1 JSC Archive

- 나는 누구인가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

필립 K. 딕

“그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말을 한 마리 갖는 것이었다.”

1. 독서노트

28기 백혜림

책에 나오는 안드로이드와 진짜 생명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안드로이드는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인간들도 감정조작을 통해 마치 기계처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드로이드는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는 그들도 구별하지 못해 판별검사를 거친 후(이마저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 안드로이드인지 인간인지를 판단하지만 판단이 내려진 후에는 엄청난 차별적 대우가 뒤따른다. 책에 따르면 안드로이드와 다른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은 ‘감정 이입’이다.

“당신네 안드로이드들은 압박을 받을 때에는 확실히 서로를 감싸주려 하지 않는군요.”

“내 생각에도 당신 말이 맞아. 우리에게는 당신네 인간들이 보유한 그 특정한 재능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 그건 바로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는거야.”

안드로이드인 갈랜드와 인간인 릭의 대화에서도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차이가 ‘감정 이입’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이입이란 것이 대단히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수인’으로 분류되는 인간 부류는 이 능력이 인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특수인으로 분류된 이지도어가 현상금 사냥꾼인 릭보다 인간적인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다. 릭은 현상금을 위해서 인간처럼 보이는 안드로이드를 죽일 수 있는 존재이니 말이다. 결국 ‘감정이입’이라는 잣대만으로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고, 설사 구별할 수 있을지라도 그게 과연 안드로이드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것 까지 이어질 수 있냐는 의문이 남았다. 결론적으로 책은 나에게 “무엇이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구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겨주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수도없이 해왔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해왔을 것이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ai와 인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면 인간은 안드로이드와 비슷해질수록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것과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여주는 바가 바로 너무 비슷해진 나머지 의도적으로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으면 안되어 안드로이드를 열등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인 듯하다. 인간이 만든 안드로이드에게 인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하지만,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게 확실한 미래의 상황이라면, 그들을 우리와 동일선상으로 봐줄 것인지, 아니면 혐오할 것인지, 또는 숭배할 것인지(사이언톨로지교 처럼) 결정해야 할 때 이다.

한가지 확실한 건, 가장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미래는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무언가에 대한 이분법적인 우열의 구분은 책에서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진짜'동물을 안드로이드를 더 열등한 존재로 뚝으로써 동물을 숭배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처럼 반대급부가 따르기 마련이다. 무언가를 나누려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까.

본 책은 는 필립 K. 딕의 1968년 서술된 도서이다. 이 책은 후에 ‘블레이드러너’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고, 지금까지도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SF책이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보인다.

내용은 이러하다. 핵 전쟁이후 사람들은 지구밖 식민지로 이민을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살아간다. 특정 지역에서 벗어나면 낙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키우는데 상당한 애착을 키우고있다. 전기양이 아닌 실제 양을 기르는 것은 소설 배경에서 추구되는 가치이다.

릭 데커드는 지구 밖 식민지에서 탈출한 안드로이드를 사냥하는 현상금 사냥꾼이다. 릭 데커드는 안드로이드를 사냥하면서 안드로이드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키우고있는 전기양이 아닌 살아있는 양을 키우고자 희망한다. 결국 그는 모든 안드로이드를 사냥하고, 한 개구리를 집에 데리고 오게된다. 살아있는 개구리라고 생각했지만, 전기 개구리인 것을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내가 이 소설을 통해 먼저 느낀 바는, 안드로이드의 삶의 욕구이다. 이 소설이 쓰여진 시기는 1960년대이다. 당시엔 AI의 개념이 지금보다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에는 안드로이드의 이너시스템이 AI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된다. 소설속에서 안드로이드는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지만, 삶에 대한 욕구라던가 우정, 증오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AI는 삶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 있는가? 모든 생물의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삶을 보존하고, 또 자신의 DNA를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시스템이 프로그래밍 되어있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생물 중 자신의 DNA를 잘 보존한 개체들만이 현재까지 그 본 개체나 또는 자손이 현재까지도 존속하고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엔 프로그래밍 되어있기 나름이다. 개발자의 목적에 맞추어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가용 능력과 방향은 개발자의 목적 내에 존재한다. 물론 버그와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

궁금한 점은 개발자가 AI가 사용되는 안드로이드에 자기생존을 목적으로하는 내용의 알고리즘을 대입했을 때, 안드로이드의 삶에 대한 욕구가 얼마만큼 가능하냐이다. 또, 거기에 넘어서 그들이 죽음 이후의 삶, 내세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는가의 점이다. 인간의 수많은 문화는 죽음 이후의 삶, 내세와 관련된 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안드로이드가 자기보존의 목적을 가진 프로그래밍이 되어있을 때, 그들이 사고가 가능한 hyper-AI라고 가정할 때, 내세에 대한 사고의 가능성이 있을까?

그들이 내세를 믿는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인간의 사고를 돕기 위한 과정에서 AI가 내세에 대한 사고를 진행할지라도 믿느냐 믿지않는가는 그들의 신념의 문제이다. 발전하는 AI속에서 그들이 신념을 가질수 있는가 없는가는 최대한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프로그래밍에 입각해 우리의 합리성이 실질하는가 실질하지 않는가와도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추후 AI의 개발에 입각해 안드로이드의 삶과 죽음에 관한 내용을 이 도서를 통해 반추해보았다.

지구는 핵무기 전쟁으로 치달은 마지막 세계대전을 끝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핵무기로 인한 방사능의 잔해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들은 화성으로 이주를 한다. 물론 여전히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발명된 ‘안드로이드’라는 인공지능로봇은 마침내 사람과 똑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팬필드 오르간’이라는 기계를 통해 자신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오르간의 다이얼을 맞춰 어떠한 ‘기분’이 들게 하는 것이다. 주인공 릭 데카드라는 현상금 사냥꾼이다. 릭은 화성에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지구로 도망친 안드로이드들을 퇴역시키는, 즉 ‘잡아 없애는 일’을 한다. 이 안드로이드를 잡으면 엄청난 현상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릭은 현상수배범 명단에 오늘 6개의 사람과 같은 안드로이드들을 죽이기 위해 길을 나선다. 릭은 안드로이드를 죽인 후에 그들에게 몰입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생각’에 궁금증을 가진다. 그 여정 속에서 릭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감정’에 변화가 생긴다. 결국 릭은 모든 불법(이라 칭해진) 안드로이드들은 없애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재회한다.

“인간에게는 매우 이상하면서도 감동적인 뭔가가 있어요.”

“당신의 감정이입, 그리고 역할 맡기 능력에는 분명히 결함이 있어요. 우리의 검사 대 상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안드로이드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예요.”

인공지능과 기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이입장치인 ‘팬필드 오르간’을 사용한다. 안드로이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즉, 인간은 감정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책 속에서는 기계를 통해 감정을 느끼는 인간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감정이입을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차이로 본다면, 안드로이드는 인간인가? 그렇다면 핵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지구에 안드로이드를 퇴역시켜 돈을 버는 주인공 릭 데카드. 그의 행

위, 퇴역은 살인인가 그렇지 않은가?

“현상금 사냥꾼이란 전문 살해자예요.”

책에서 안드로이드는 현상금 사냥꾼이란 전문 살해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실,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는 안드로이드가 마냥 인간처럼 꿈을 꾸거나 감정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거나,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책 속에서 안드로이드는 때론 쉽게 포기하고, 아무런 감정 없이 다리를 잘라내기도 한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진짜 인간일 수 있는지 그 무자비함에 소름이 돋는다. 그러나 여전히 릭부부의 대화처럼 감정이입 장치를 통해서 생활하는 인간들도 과연 안드로이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는다. 기억에 남는 것은, 릭이 돌아와서 하는 다음의 대화이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반성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한 일은, 나에게 낫선 것이 되고 말았어.”

2. 세션 리포트

1) 민족의 유효함

“제4장 크리올 선구자”에서 보면 결국 본토와는 다르게 “우리는 아메리카 태생이다”라는 관념은 민족의 개념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발제자는 이 이야기의 일부를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은 다른 집단들과는 구분되는 우리만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실제로 한(韓)민족이라는 개념 역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일본에 대항하여 “우리가 뭉쳐야 한다”는 민족 운동가들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 공동체가 다른 무엇과는 다르다는 개념은 민족에 굉장히 중요하다.

현대사회를 보면 통신과 교통의 발전으로 더 많은 문화, 사회, 경제, 정치적 교류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계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토론과 독서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동시에 “다름(공동체의 고유의 문화)”에 대해 열망과 보편화에 대한 반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도 민족 혹은 (민족국가, Nation state)의 개념이 유효하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한(韓)민족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 논의

한 학우는 “다름”이라는 개념이 어떤 집단을 만들어 낼때도 유효한 개념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뿐만 아니라 꼭 민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개념의 상상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민족과 같은 구분과 차별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민족을 떠나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게 집단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그 특정 민족의 언어로 쓰인 근대 문학이 “nation”의 개념을 정립하게 하는 도구 였다면, 이제는 더 나은 번역과 물물교환이 예전보다 나아지면서 같은 경험

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민족을 넘어서서 다양한 개념의 공동체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학우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개념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만이 아닌 다른 상상된 공동체들이 대체되는게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렇다면 민족의 개념이 유효하고 지속될거라 생각한다.

유럽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다. 유럽연합 설립이후 그 이후 유럽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그 중 하나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 유럽 언어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 해서 하나의 공용어가 아닌 모든 언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결국에는 결정적인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유럽연합 초기에는 통합에 대한 열의가 강했던 것에 반해, 점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며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많은 학우들이 “다름”의 맥락 안에서 그 민족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언급하였다. 중학생 자살 사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이 그 예시인데, 결국 소수 인종들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임을 지적하며 민족주의가 부정적으로 발현된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른 학우는 단순히 인종주의,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그것이 수반하는 사회 문화적 계급의 문제도 함께 지적하였다. 아무리 부유한 아시안이어도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며 결국에는 민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 남북한 사람과 민족

저자는 죽음과 더불어 언어는 굉장히 끈질긴 존재라 설명하고 있다. “특정한 언어들이 죽거나 사라져 없어질 수는 있어도, 인류의 전반적 언어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78)”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는 한 민족을 구성하

고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북한과 남한의 경우를 한 번 생각해보자. 오랫동안 “한민족”에 관한 담론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그러나 실제로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은 말이 통하는 외국이다”²⁾라고 말하기도 하며 한국은 대부분 외래어를 쓰기 때문에 소통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³⁾ 이러한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언어적 동질성은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한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앤더슨의 정의에 입각하여 언어를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때,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을 여전히 (韓민족이 아닌) 한(一) 민족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논의

한 학우는 우리가 “한민족의 정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일제 강점기 시대의 잔재이며 경성제대 학자들 이후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재생산 되어왔음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한민족의 정서는 꼭 외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하고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건강한 한민족의 개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른 학우는 그 기원은 제국주의의 잔재인 것은 사실이나, 그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재생산해온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 민족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계가 제국주의파 학자들에게 오랜 기간 지배되어 왔고, 특수한 역사성의 일부(일제 강점기시절)만을 반영한 수동적인 한국의 정서는 이제 대체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학우는 실제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독점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서들이 사실은 독점적이지 않은것만 봐

2) “탈북자, 한국은 언어가 통하는 외국”(2015.05.12), 뉴스포커스

3) “탈북자가 남한적응 중 겪는 가장 큰 어려움”(2002.12.05), 자유아시아방송

도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왔던 우리나라의 정서를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 학우는 한민족의 개념에 있어서 반일 감정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였다. 식민시대를 겪었다는 역사적 특수성이 민족의식을 발현시켰다는 것을 지적하며, 동시에 남북이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역사의식이라고 하였다. 다른 학우는 위의 말에 덧붙여서, 이런 맥락에서 “여집합”의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상상된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한 학우는 동일한 언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언어가 같으면 소통이 쉽기 때문에 민족의 통일성을 이루기 쉽긴하지만, 북한과 남한의 경우 너무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고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체제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한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다른 학우는 여러 다큐멘터리나 설문조사를 보아도 교육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다른 경제 문화 사회 교육적 배경을 들어 언어가 같다고 모두 같은 민족이며 소통이 쉽다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덧붙임 하였다.

많은 학우들이 아랍, 유대인의 예시를 들으며 언어가 꼭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같은 역사적 사건을 공유한 민족은 강한 결속력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 논의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만약 통일 후, 체제가 통일되고 역사가 재편집 되었을 때, 재편집된 역사를 통해 공통의 역사적 사건을 공유할 수 있다면 남한과 북한도 지금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3) 공공의 선을 위한 개인의 희생

“접합된 권력 구조로서의 가족이라는 관념에 대한 많은 저술이 지난 20년간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인류의 압도적인 대다수에게 그러한 개념은 분명히 낯설다. 오히려 전통적으로 가족은 사심 없는 사랑과 결속의 영역으로 사고되어 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사가들과 외교관들, 정치가들과 사회과학자들이 ‘국익’이라는 생각을 꽤나 편하

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어느 계급 출신이든 보통 사람들 대부분에게 민족의 골자는 그것이 이익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바로 그 이유로 민족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p.217)”

“궁극적 희생이라는 관념은 죽음을 통해, 오로지 순수성이라는 관념과 더불어 온다.(p.217)”

아무리 순수하고 역사적 사명을 가진 공익에 대한 것일지라도, 사회와 역사 그리고 민족은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가?

▶ 논의

어떤 학우는 이에 대해서 남북단일팀 이야기와 같은 선상의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질문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민족성을 얼마나 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지와 자아를 규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또 다른 학우는 이에 대해서 군대가 이 질문의 적절한 예시가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강제징집에 응하는 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예시로 조금 더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사회가 점점 더 공동체나 민족에 대한 패러다임보다는 개인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 같고 앞으로 더욱 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우는 사회가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를 위해 기꺼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에 대해서 희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간단히 예시를 들자면 거울 속의 개인은 자신감이 안 차지만, 공동체 속의 개인은 소속감을 이유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논의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신에 개인의 동원 심리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는 강제적인 동원보다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동원을 노려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제는 요구하기 보다는 요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지가 더욱 중

요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로 말 끝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국가라는 단위에서 동원되었다면 이제는 다원화된 차원에서 동원이 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은 사회의 공익을 위해 개인의 사익을 없애는 차원이 아닌가라는 논의도 나왔다. 옛날에는 국가라는 차원 하나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가치에 집중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4) 한국과 근대 지도와 센서스

제10장을 시작할 때 저자는 동남아시아에 집중하여 내용을 전개한다고 하며 다른 지역에 대한 지식을 가진 독자들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저자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 한국의 경우 근대 지도와 센서스는 19세기 말에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계량화된 센서스와 지도의 개념을 한국에 적용해볼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겠는가?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논의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서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여 발제가 미숙한 점이 많았다. 많이 아쉽고, 또 혼란스러웠을 학우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럼에도 진행해준 학우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논의에 대해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적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지도로 무언가를 구획하고, 나눠 통치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나라와 외부를 구획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적용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저자인 스피겔은 동인도회사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에서 동인도회사가 이런 일을 했던 이유를 경제적 이유로부터 도출했다. 즉 동인도회사와 영국정부를 동일시해선 안 되며 철저히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배와 동일시해선 안 된다. 일본 같은 경우와 동인도회사는 주체의 특성과 식민지 특성도 정말 다르기 때문이다.

5) 동학과 종교적 민족 정체성

센서스는 1차적으로 범주를 결정할 때 종교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사람들은 종교적 소속감을 포기하지 않았고 국가는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 종교는 상상된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이슬람권, 아메리카 대륙 등은 해당 문화권에서 지배적인 종교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경우 지배적인 종교를 떠올리기 어렵다. 한편 한국에서는 과거 서양의 침략에 대응하여 동학이 크게 부흥한 바 있다. 동학은 당시 사람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에 성공하였다고 보는가?

▶ 논의

이에 대해 민족 종교로서는 동학보다는 대종교가 더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종교는 나철과 오기호가 건국신화를 바탕으로 만든 종교로 민족적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대종교 쪽이 더 부합한다고 보았다. 아랍연합도 무슬림이라는 이름아래 메카에 몰리고 유대감을 느끼는 것처럼 신화 같은 게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용에 대한 관념이나 악마에 대한 관념이 동서양이 서로 다른 것에서 볼 때 종교가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는 딱히 종교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논의는 한국의 민족종교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 건국신화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견해가 있었다. 중국의 경우 신화를 가지고 소수민족과 어떻게 할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한족신, 소수민족 통합 위해 모든 민족의 신으로서의 황제 동이족 치우 등 다른 신도 모신다. 즉 신화를 종교로 본다면 정체성을 성립하는 데에 많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아메리카 정체성에 청교도적 신념이 작용하였다.

이는 동학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동학은 사실 만민평등사상 등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저자도 민족주의가 종교를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종교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되어야하고 이데올로기와는 구분되어야한다고 보았으며 동학도 종교라기보단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종교는 좀 더 힘들 때 의존할 수 있는 이성적 범위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와 같은 동학의 특징과 다르며 따라서 동학이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엔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사회운동에 사람을 효과적으로 동원했지만 민족적 정체성을 자극시켜 동원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동학이 종교적 색채를 띠다가 점차 일본에 대항하여 반외세적 색채를 띠기 시작하였을 때 민족주의적으로 변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동학이 애초에 서학에 대항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원래 동학이 만들어진 민족주의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지만 반외세라는 이름으로는 민족을 규합했지만 만민평등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규합엔 성공시켰지만 농민계층 등 하급계층이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민족근간이 되는 신화가 더 종교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종교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화를 종교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어떤 시점에서 구분할 수 있는가, 종교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등은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종교인가? 라는 질문과 동시에 근대 이후 나온 근대 사상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종교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자 종교자체의 민족적 정체성 부여 여부, 기독교와 유교의 비교가 더 옳지 않은지, 유교를 종교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등의 질문들이 남겨지게 되었다.

2019-1 JSC Archive

- 나는 누구인가

정신 자아 사회

조지 허버트 미드

“저술가나 예술가에게는 그의 수용자가 필요하다. 사람은 타인이 정당하게 평가해 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창조물 속에서야 자신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완성한 것은 본성상 사회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가 자아인 한 그는 공동체 활동의 유기적인 일부이지 않으면 안 되며, 그의 공헌도 사회적인 것이어야 한다.”

1. 독서노트

26기 김향연

인간은 환경이나 사회에서 벗어나 타인 없이 혼자 살 수 있을까? 이는 사회가 형성된 이후, 어쩌면 사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는 의문이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한 논의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정신과 특성이 내부로부터 오는 것인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지 논의해왔다. 사실, 어느 한 쪽만의 작용으로 '내'가 형성되고 발전된 것은 아닐 것이다. 내부와 외부의 상호 작용과 반응으로 인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정신·자아·사회』(1934)에서 저자 조지 허버트 미드(George Herbert Mead, 1863~1931)는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존재를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사회 속에서' 비로소 정신을 지닌 생각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우리의 삶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반응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통제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다. 자의식적인 인간으로서 획득한 것이 우리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며 자아를 부여한다. 자아들은 다른 자아들과의 분명한 관련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개인은 자기가 속한 사회적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의 자아와 관련해서만 자아를 소유한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사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반영되는 것일까? 저자가 인격형성에 있어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적응을 위한 진화의 결과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적응을 위한 기제로써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인간이 동물과 차이를 가지는 것은 집단생활을 위한 지금의 본능, 즉 사회적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신을 단순히 개인 유기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비록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생물

학적 기능조차도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정신의 설명으로 가능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뇌의 자연적·사회생물학적 활동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정신의 사회적 본질을 인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신이 사회적 과정,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적 매트릭스 안에서 일어나 발달한다고 간주해야 한다.”

책은 사회적 행동주의의 관점을 가진 저자가 언어의 기원을 포함해 개개인이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과 함께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근본적으로 유아는 타인에게 종속적이고 강제적으로 의존되어 성장하게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유의미한 몸짓과 특히 소리 몸짓이라 불리는 언어를 배우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때 유아는 타인의 역할 취득과 내적 시연을 통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데 이때가 정신이 발생하는 때이다. 특히 행동의 주체인 ‘주체로서의 나-(I)’와 타인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객체로서의 나-(Me)’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설명한다. 저자는 “자아는 태어나자마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과 활동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라며 “완전한 자아는 ‘주체로서의 나’와 ‘객체로서의 나’의 조화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저자는 정신과 자아를 기존의 실체주의 철학이나 심리학처럼 고유한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안에서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언어는 우리가 반응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며, 개인 유기체 안에 그 것들을 담고 있을 수 있도록 해준다. …(중략) … 언어는 정신을 구성하는 의미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이다. …(중략) … 정신은 사회적 과정속에서,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적 매트릭스 안에서 일어나 발달한다고 간주해야 한다. …(중략) …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반응하는 행동 유형이다.”

정신의 출현은 자아생성의 전제조건이고, 자기자신을 대상으로 보는 능력은 학습된 행동의 한 유형으로서 이것은 타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된다.

이 책은 사회심리학자인 미드가 인간의 정신과 자아와 사회에 대해서 사회심리학과 사회적 행동주의자적 시점에서 인간의 정신과 자아와 이에 따른 사회를 분석한 책이다. 이 부분에서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파트는 제스처에 대한 부분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제스처는 그저 인간이 보다 자신의 언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합리적인 사고과정에 입각한 것에 대한 결과적 행위 즉, 일종의 합리적 사고에 대한 아웃풋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온전히 개인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배운적도 없고 독단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스처가 사람들마다 비슷한 이유는 그것은 사회적으로 학습되었다기 보다는 그저 그 특정 상황에서의 특정 제스처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학습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좀 다르게 보았다. 이 책에 의하면, 제스처는 사회적 학습의 산물이라고 한다. 즉 제스처는 내가 위에서 언급했듯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방을 통해서 사회적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스처를 습득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책에서의 서술을 통해서 하나 둘씩 이해하고 이 책이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알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생각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공통된 제스처들의 이유가 사회적 학습과 모방이라는 이유 보다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고 이러한 합리적 선택은 어느 정도 보편성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되게 비교적 통일된 양식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대화중에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발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며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표정과 같은 경우에도 사람은 말을 하면 소리가 나는 입, 즉 얼굴을 주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보여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책 내용에 있는 미드의 전반적인 주장은 흥미롭고 재밌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내 생각 또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고 말을 한다. 이러한 명제에는 나와 남들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있다. 만일 나와 남이 명쾌히 구별이 안된다면, 혹은 '남들'이 '나'라는 자아를 구성하고 내가 남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간다면, 내가 남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에 책 <정신·자아·사회>에서 나와 사회의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상징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자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미드에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라는 말은 부조리하게 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드의 주장을 방증하는 사례들은 현실에서도 어렵지않게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면서 자신을 구성해나가고 욕구를 형성하게 된다. 유아는 부모님을 따라하면서 자아를 구성해나가고, 사춘기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이나 연예인같은 사회 구성원을 모방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나간다. 또, 우리는 성장하면서 사회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은지를 배워나가고, 암묵적인 사회의 규칙들을 내면화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본인의 욕망을 형성한다. 사회에서 유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치부되었던 옷이나 행동들이 언젠가부터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 삶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우리의 정체성이 사회를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우리를 누구의 아들, 어느 학교 어느 학과의 학생으로 소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회에 비추어 판단하고 구성한다. 성격을 소개할 때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보고 성격을 판단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성격을 판단한다.

미드의 주장은 사회가 자아를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사회를 만들거나 바꾸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물론 사회가 자아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기에 똑같은 사회의 작용에도 다르게 반응하는 개인들은

충분히 나오지만, 그러한 개인들의 특이한 반작용이 상징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바꿔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권 운동가들이나 혁명가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회는 변화가 일어나려 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통해 이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것 같다. 그렇기에 개인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면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해나가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19-1 JSC Archive

- 나는 누구인가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스탠리 큐브릭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1. 독서노트

26기 김향연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음악과 함께 영화는 시작된다. 캄캄한 우주 속을 떠다리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드는 시작과 함께 거대한 행성이 보인다. 푸른 행성, 지구이다. 한줄기 빛이 이 행성을 비춘다. 행성을 비추는 이 한줄기 빛은 인류의 시작, 즉 문명의 시작을 의미한다. 인간이 아직 원숭이의 형태를 하고 있던 먼 옛날 동물과 비슷한 소리를 내며 돼지를 잡던 최초의 인류가 사냥도구로 사용한 뼈다귀를 공중으로 던진다. 하늘로 던져진 이 뼈다귀는 곧 우주선으로 바뀐다. 원시시대에서 21세기까지 그 오랜 시간의 인류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을 공중에 던져진 뼈다귀와 우주선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춰진 빛으로 표현된 문명, 하늘로 던져진 뼈다귀와, 하늘로 날아오른 우주선 결국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하늘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1999년, 플로이드 박사는 특이한 자기장을 지닌 물체인 TMA-1을 조사하려 달의 뒷면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발굴된 검은색 석판의 모습을 하고 있는 TMA-1은 햇빛을 받자, 갑자기 강렬한 전파 신호를 목성으로 내보낸다. 그로부터 2년 후, 우주선 선장인 데이비드 보먼과 프랭크 풀, 세 명의 과학자, HAL9000 컴퓨터를 실은 디스커버리 호가 목성을 향해 떠난다. 우주 공간을 유영하던 어느 날, 컴퓨터가 갑자기 우주선 외부의 AE-35 안테나 유닛이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알린다. 프랭크는 우주선 밖으로 나가 AE-35유닛을 고치고 들어온다. 그런데 그 후 또 컴퓨터가 유닛이 고장 났다고 말한다. 프랭크와 데이비드는 그제야 컴퓨터가 고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프랭크와 데이비드는 의논 끝에 컴퓨터를 정지시키기로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아차린 컴퓨터는 이것을 막으려고 프랭크를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데이비드는 프랭크를 구하기 위해 소형 작업선을 타고 우주선 밖으로 나가지만 구출에 실패한다. 그래서 다시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컴퓨터가 이를 막는다. 그러자 데이비드는 수동으로 문을 열고 우주선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

고 컴퓨터의 생각 패널을 하나씩 분리한다. 컴퓨터는 [데이지]라는 노래를 부르며 작동을 멈추고, 그때 플로이드 박사의 비디오가 재생된다. 디스커버리 호의 임무는 사실 목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TMA-2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목성에 있는 TMA-2로 간다. TMA-2는 그를 하얀색 타일이 붙여진 방으로 옮긴다. 여기서 데이비드는 우주복을 벗는다. 그리고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그 손끝에 지구를 보고 있는 아이가 있다.

영화는 우주 공간 속에서 최소한의 대사와 움직임음 통해 내용을 전달한다. 어찌보면 불친절하기도 하다. 그러나 영화와 함께 진행되는 다양한 배경음악은 영화를 보는 내내 놀라움 정도로 발전한 인간의 과학기술에 경이로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 음악들은 우리가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끼면서도 미래 대한 불확실성과 일종의 공포감 역시 느끼며 온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분을 만들어 낸다. 실제로 영화에 사용된 음악들 모두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영화의 내용을 인지와 동시에 음악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도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국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함께 은연중의 애써 무시하는 불안감을 알려주는 짜임새였다.

영화는 [인간의 진화](#)와 [기술](#), [인공지능](#)과 [우주](#) 생활을 다루고 있다. 영화에 나오는 컴퓨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다. 때문에 인공지능 컴퓨터는 스스로 인지하고 위험을 감지하여 인간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결국 해체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인간의 감정 혹은 의식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해체할 권리, 혹은 그 어떤 정당성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인공지능의 존폐에 대해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을까? 영화는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지금까지 이어오는 논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든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1968년에 2001년을 상상하며 만들었다고 한 영화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작품성과 표현력을 자랑한다. 2001년에 2050년을 바라보며 만들었다고 해도 믿었을 만큼 정교하게 표현된 우주의 모습과 한참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2019년에 보아도 어색하지 않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묘사가 매우 인상깊었다. 그리고 마치 우주에 있는 듯한 영화 음성들이 영화에 좀 더 몰입하고 주인공 우주인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렇게 우주를 극적으로 사실적이게 표현한 영화 속에서 가장 소름이 돋고 인상적인 부분은 인공지능 컴퓨터 HAL과 우주인 데이브의 대화였다. HAL은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데이브와 대화했지만, 사실 그 차분함에서 HAL이 데이브와 이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데이브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속해서 그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정말 데이브가 중간에 HAL을 제거하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긴장하게 되었다.

영화가 만들어진 1968년에서 2001년을 바라보고 만들어진 영화이니, 지금을 기준으로 똑같이 50년 정도가 지난다면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갖게 될까? 지금처럼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가치 판단 없이, 사회나 국가가 당연히 추구해야하는 목표가 되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렇게 갖게 된 기술로 인공 지능이 학습 능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 여겨지는 공감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껏 과학 우상주의에 대한 논쟁 대부분은 과학 기술이 옳은 일에만 쓰이는 지 혹은 과학 기술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과학 우상주의에 관한 논쟁의 새롭고 중요

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단순히 HAL이나 영화 속에서 보이는 우주에서의 삶이 가능하게 된 것, 그리고 HAL과의 갈등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은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굉장히 당연한 인류의 “오디세이”의 일부처럼 묘사가 된다. 영화에서 진짜 핵심은 HAL이 내린 결정이 우주인들의 결정과 달라서 그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실제로 우주인의 판단이 맞는지, HAL의 판단이 맞는지는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과학 우상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핵심은 진보된 과학 기술이 사실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느냐 보다는 인간의 감정, 권위를 건드리지 않고 인간의 “보조자” 역할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정말 과학이 인간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결국 모든 논쟁의 핵심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기계가 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인간을 규정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로 회귀하게 된다. 영화는 과학이 극도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답해야 하는 과학 우상주의의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우리 인류는 우리 상태로 완전한 것인가? 진화의 끝은 여기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영화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포인트는 사실 제일 큰 것은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인류의 역사 진행과정을 보여준 처음 부분에 나오는 영상에 대한 논평과 그것을 통해 나오는 인류의 진행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하지만 난 여기서 과연 현재의 인류가 완전체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인류는 진화해왔고 구석기 신석기 등을 거쳤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히려 이러한 점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진화하고 있으며 진화를 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이 최종 발전된 상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인류는 그 생각을 해왔다. 즉 모든 시기의 모든 세대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자기들은 완전체이고 그 전의 인류는 미개하다고 생각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시사해주는 점은 현재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한 과오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교만한 생각을 벗어던지고 겸손한 태도로어나더레벨로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 과오를 안 범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인류가 범하는 대부분의 과오들은 거의 다 오만함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 오만함은 이미 인류는 진화가 끝난 상태이고 완벽하고 완전무결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만함과 이를 유발시키는 인식을 바꿔 버리면 그러한 과오들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오만함을 버리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진화를 해야 할 인류라는 점을 늘 인지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2. 세션 리포트

26기 민태원

28기 백혜림

1) 과학의 이상화

이 영화는 자라투스트라의 곡을 씬으로서 니체가 주장하는 바를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 영화 자체가 니체 사상의 시각적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니체는 인간이 원숭이와 위버멘쉬(진화한 인류) 사이의 중간과정이라고 한다. 영화에서 유인원은 원숭이, 인간이 목성에 도착할 때까지는 인간, 그 다음 스타차일드는 진화한 인류 위버멘쉬로 표현된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낙타(인내), 사자(용기), 어린아이(창조)의 단계로 진화한다고 보았다. 한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우상→)현대는 인간 손으로 만든 기계에 의한 인간 지배)이 낙타의 단계, 보우먼이 현대의 우상(신) HAL9000을 파괴하는 것을 사자의 단계, 스타차일드를 어린아이의 단계로 보면 딱 맞다.

위와 같이 니체의 사상과 영화를 엮어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로 유명하다. 종교의 시대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신은 죽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충격적이지 않다. 그 대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화에서 HAL9000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인공지능)을 신(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니체의 말처럼, 그리고 영화에서 던지는 메시지처럼 과학의 이상화(과학주의)는 극복하고 경계해야 할 일인가?

▶ 논의

과학주의의 전제처럼 깔리는건 과학기술은 굉장히 중립적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과학기술은 중립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함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실리콘 밸리에서 아이폰을 가지고 도로 고장을 추적하겠다고 정보를 시청에 넘겨줬는데, 아이폰은 부자들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부자들이 다니는 도로만 계속 고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런걸 보면 과학기술이 충분히 정치

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학주의를 경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객관적,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강한데, 합리적, 객관적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과학이라는 게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왔던 자유의지의 유무에 대한 논의도 과학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다는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없다는 명제는 범죄와 같은 사람의 행동을 합리화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과학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모든 인력이 과학기술로 대체된다면 이 세상의 노동이 사라지고, 과학기술, 자본, 연구원 말고는 모두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해왔었다. 과학주의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모든 경제활동이 잠식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인간소외, 기본복지를 누가 가질 것이냐는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학기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논의는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경계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 인문학에서 우리 모두평등하다고 말하는데, 과학이 발달이 됐는데,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는 게 데이터로 밝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첨언이 있었다.

미국에서 인종을 가지고 IQ조사를 했는데 인종별로 다르게 나왔다. 이걸 가지고 인종차별이다, 객관적 데이터에 따른 것이다, 라는 논쟁이 있었다. 흑인들이 스포츠를 잘하는데, 수영선수는 없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흑인들은 가난하므로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울 환경이 안될 수도 있다. 이런걸 봐서 중립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평등이란 결국에 추상화를 해야 가능한 개념인 것 같다. 시민권으로 추상화한 평등을 바탕으로 1인 1표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화와 권위로부터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인간과 기술

영화의 첫 부분에서 인류는 모노리스를 통해서 도구, 기술에 대한 관념을 갖고, 이는 인류 역사에 질적인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무기로 쓰이는 뼈다귀에서 우주선으로 넘어가는 유명한 몽타주는 인간의 역사는 곧 기술 발전의 역사에 다름 아니며, 기술 없이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지만 영화는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바람직한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달을 넘어 목성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플로이드 박사와 프랭크는 함께 생일을 보내기 위해 가족에게 갈 수는 없다. 기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또한 프랭크와 동면한 과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HAL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머니에 HAL을 한 대씩 들고 다니는 지금 시대에 인간의 신체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의 배경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기술이 인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지는 더더욱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다.^[1] SNS는 사람과 사람들을 가까이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스마트폰은 사람들의 능률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집중을 저해하기도 한다. 우버, 타다와 같은 카 셰어링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을 하는 택시기사들은 기술의 문제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술은 지금껏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앞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기술이 인간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순기능만을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1]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122792.html>

▶ 논의

과학주의가 평등주의를 보장할 수 있을까? 돈이 없는 사람은 과학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과학주의는 평등한 사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2번 발제에 대해 토론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토론이 진행되었다.

순기능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과학이 발달한 만큼 감수성도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 시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류 역사상 당연히 있어야 했었던 죽음들도 현대에 와서 문제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다.

근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은 빨리 변하지 않았고, 이 기술을 선택하느냐 안하느냐가 개인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기술철학자들은 기술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중립적이지 않다고 얘기한다. 사람들은 중립적이라고 받아들인 기술이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윤리의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성찰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을 취할 수 있는 윤리의 힘은 당위적이라고 생각한다.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선택하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다. '타다'의 경우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택의 문제가 개인에게 달려있을 수 있지만, 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유주의 시대에서는 모든 개인을 합리적으로 보는데, 한 개인이 순기능 역기능을 선택하는 것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술 철학자중 한명은 기술이 인간의 신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걸

보고 인터넷을 생각했다. 인터넷은 인간의 시각만을 강조하는데, 대신 청각과 후각의 기능이 약화된다. 결국 시각적인 것만 중요시되고 나머지는 경시되는 문화가 생긴다. 이것 역시 역기능 중 하나라는 의견이 있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아하는 기술처럼 사소한 기술들도 법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라는 의견이 있었다.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기술이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몰카범죄가 많으니 카메라에 소리를 넣도록 하는 것처럼 엄청난 기술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술이 인간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줄이고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의견이었다.

반면, 정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의 악기능을 보장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가 기술의 힘으로 개인의 정보를 가질 수 있을 때 많은 악기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신이 죽은 사회

큐브릭은 신에 대한 개념이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전통적인 관념의 신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큐브릭에게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만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으며, 태양계가 아직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리다는 사실은 외계인들 중에서도 인류보다 훨씬 고등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에 발간된 클라크의 동명의 소설에서도 우주에 존재하는 인간보다 고등의 존재에 대한 암시를 찾을 수 있는데, 소설에서 첫 번째 모노리스는 우주의 존재들이 인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두 번째 모노리스는 그들이 어느 수준의 발전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장치로서 달에 놓여졌다. 세 번째 모노리스는 다양한 은하계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스타게이트로 이 끝에 위치한 방은 외계인들이 보편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동물원이라고 보편은 말한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신에 대한 관념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큰 주제 중 하나이며, 모노리스들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보다 고차원적인 존재를 방증한다.

비록 영화에서는 신에 대한 존재를 상정하고 신이 인류에 무시 못할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신은 그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인류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다.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수많은 문명들 대다수는 그들만의 신, 혹은 신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었고,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관념은 사람들이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바라보며, 이에 맞춰서 삶의 계획을 수립하고 행위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신이 죽은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치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이에 개인들은 어떠한 가치에 기초해 삶을 꾸려 나가야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사회 또한 분열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신이 없는 현대의 문제점들을 인류는 어떻게 타개해나가야 할까? 새로운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신의 죽음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있을까?

▶ 논의

신이 죽고, 모든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사회나 개인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맞는지 성찰하고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분열의 여지가 많다.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대부분 무슬림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없다. 서방사회에 살다가 가치를 고민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테러리스트가 된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신이 죽은 현대사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제를 했다.

현대 사회가 신이 죽어도 밥은 넘어가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예전에는 민족을 위해 살아가고, 신을 위해 살아갔다. 공동체적인 가치도 있었고, 민족적인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죽을만한 가치가 없다. 따라서 살만한 가치도 없는 사회일 수 있다. 신이 하나의 가치를 보증해주지 않는 사회에서, 삶은 혼란스러워질 수 밖에 없고 먹고사는 문제에 쫓길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치가 있었던,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한국사회나 미국사회에서는 인문학이 선호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을 게 숫자밖에 없어졌다. 그러다보니까 계량화, 수치화에 더 집중하게 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규범과 공통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장 믿을 것은 숫자뿐인 것 같다는 의견이다.

이런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수적인 시대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명확히 나뉘져 있었다. 하나의 길만이 바람직한 삶이라는 가치관이 많이 사라졌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혼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혐오문제도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옛날에는 신이 공통된 규범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짜뉴스가 지금 막 생긴 게 아닌데, 왜 지금 더 문제가 되냐. 예전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되는 뉴스가 나와도 옳고그름의 판단이 가능했는데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면서 완전히 틀린 것은 없는 가짜뉴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가짜뉴스가 신이 죽은 사회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양성이 커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택지에서 더 나은 대안을 도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세시대에 신이나 왕이 절대적인 가치였을 땐 그것외에는 다른 답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2019-1 JSC Archive

- 나는 누구인가

발행일자 : 2019년 8월 22일

지은이 : JSC 인문사회챗터

김규현 김서연 김향연 김희연 민태원

백혜림 원서연 조성근 최희찬

편집인 : 김향연 민태원 원서연

Junior Scholar Club